

30주년 헌법에 바란다

건강증진운동의 선봉장이 되길



이 시 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잘 살아 보고자 법석대던 새마을 운동이 한때는 국제적으로까지 널리 알려지고 꽤나 유명했었다. 사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 지역 경제 사회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 사회 변화에 신바람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그만 1980년대 초부터는 우리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휘청거리더니만 끝내는 정치적으로까지 휘말려 주저 몰려 앉고 말았다. 우리나라 사회 운동의 중요한 한 대목이 영구적으로 남지 못하고 막을 내린 듯하여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 시대적으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던져졌다. 그것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시다”라는 운동이다. 사실 이 운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먼 옛날부터 이야기해 온 터였으며 이 운동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30년간 헌신해 왔다.

다만 하고 많은 일 때문에 건강사업은 써가 먹혀들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그동안 하도 북치고 장고치며 “잘 살아보자”고만 외치는 판에 “건강하십니까?”하고 물어 보아야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가져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많은 사람, 아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스스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절실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에 비하여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의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병·의원마다 환자는 장터모임 마냥 북적대니, 국민 대부분이 환자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

이렇게 병·의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은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한 본인의 의사 표시를 치료기관인 병·의원에 맡기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건강관리는 결코 치료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예방 관리만이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불명할진데, 우리 모두가 평소 건강생활을 통해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건강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의 상위권이 전부 생활양식과 밀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건강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는 「그린」 교수도 불의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약 70퍼센트가 평소 자기건강관리에 대해 무심하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1세기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더욱 많은 만성 퇴행성 질병들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예방 차원에서 건강증진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러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예방적인 차원에서 각종 검사와 보건교육 활동의 경험을 어느 조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소의
건강생활을 통해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건강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보건증진 사업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명랑하고 기분좋은 인사가 국민들 누구에게나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라고 싶다. 한때 새마을 운동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 만큼 건강증진운동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성공적으로 퍼주길 기대한다.

건강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만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선생님이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의 실천의 길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꼭 열어 주길 바라고 싶다. ㉞